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알게 하옵소서

얼음 깨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목장 방학이 마치고, 다시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만나는 첫 시간,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서로의 기대를 나눠주세요.

1. 방학 동안에 다녀온 곳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였나요?
2. 방학 동안에 한 일 중에서 제일 뿌듯했던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3.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나눠 주세요.

경배 찬양

온 맘 다해

1.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칠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후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려 온 맘 다해

교회 소식

1. **목장 모임 시작** 3월 3일 주일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하늘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2. **성례식** 성례식을(3월 17일) 위한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청장년 교육 일정 : 세례 / 입교 / 학습
- 1회차 : 3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2회차 : 3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소년 교육 일정 : 세례 / 입교 / 학습
- 1회차 :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 2회차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유아세례 교육 일정 :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교회행사

3월

- 3일 목장 모임 시작
- 17일 성례식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 24일 종려 주일
(성찬식)
- 25-30일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31일 부활 주일

선교

[박문수 선교사]

태국

1. 선교사들과와 교역자들의 영적 지혜와 강건함을 위하여
2. 월드 교회와 선교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3. 예수원과 월드미션 센터를 통해 인제가 양성되도록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 아우구스티누스 -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의 질문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을 지나가시던 도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27절)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28절)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29절).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해 하셨지만, 더욱 알고자 하신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경고하시는 예수님, 항변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29절)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신앙고백 같은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경고’였습니다.(30절) ‘경고’에 해당하는 원어는 ‘에피티마오’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나 바다를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1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베드로의 반응은 ‘항변’이었습니다.(32절) 여기서 쓰인 ‘항변’이란 단어의 원어도 ‘에피티마오’입니다. 한 단어를 두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에피티마오’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을 꾸짖는 데(에피티마오) 사용됩니다.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나눔 질문을 답해 보세요.

[나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와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각각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하나님의 일 vs 사람의 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당시 대부분 유대인이 생각한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독립시켜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의 그리스도는 말을 타는 존재였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은 맞으나 그 힘은 눈 먼 자를 눈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는 힘이었습니다. 곧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람의 일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크게 여기는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눔] 삶에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게 되는지 서로 나눠 보세요.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4절의 말씀을 한 번 같이 읽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비록 그 일과 그 길이 우리를 고난과 죽음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리나 구경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돌아보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수고로움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수고로움을 감당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고로움이 예상되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나눔

주일 말씀 [주님의 길과 제자의 길 / 마가복음 8:27~9:1]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시다.

기도

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힘써 알아가며, 그에 걸맞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소서.
바른 행함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어가게 하소서.